부산남구신문

구 정 목 표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
Change more Namgu
■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
■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 조성
■ 구민을 섬기는 열린행정 실천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음력 1월 3일) 제192호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재정 조기 집행

상반기 중 구예산 715억원, 경제적 파급효과 큰 사업 대상

남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남구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상반기까지 모두 715억원의 재정 조기집행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낭비·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해 집행의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조기집행 대상은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시설비, 재료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올 상반기 중에 2011년 이월사업을 포함해 실시될 예정이다.

구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과 자금을 배정하는 등 예산 집행 절차를 단축하고 긴급입찰로 계약 소요시간을 축소하고 있다.

목표액 조기달성을 위해 지난해 12월29일부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 재정조기집행에 적극 나서 전국 자치구 2위(1/4분기), 부산시 2위(6월말)로 상사업비 4억6,000만원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사업비는 남구대학로 문화거리 조성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필수사업에 편성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했다.

구청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에따라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게 됐다"며 "예산을 상하반기에 균형적으로 집행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덴만 여명작전 성공 1주년 기념행사

전적비 제막·최영함 당시 상황 재연 등 다채

아덴만 여명작전 성공을 기념하는 전적비가 지난 19일 제막식을 갖고 해군작전사령부 내에 세워졌다.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하고 선원들을 안전하게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성공 1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전적비가 세워졌다.

해군은 지난 19일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허남식 부산시장, 이종철 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 선장, 학생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덴만 여명작전 성공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제막한 전적비는 시 특별교부금 2억원을 포함한 3억8,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작전사령부 종교시설 내에 설립됐으며 가로 10m, 세로 5.5m, 높이 11m 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전적비는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의 시간과 항로를 알리는 지구본 아래 해군 특수전 용사 3명이 서있고 이를 군함이 떠받치고 있는 형상을 갖추고 있다. 또 군함 옆 부조에는 주요 작전 내용이 문양으로 새겨져 있다.

제막식 외에도 해군작전사령부 기지와 최영함에서 아덴만 여명작전 전적비 제막식과 대테러 장비·해적 압수 물자 전시, 특수전시범, 아덴만 여명작전 상황 재연 행사 등이 다채롭게 열렸다.

아덴만 여명작전 상황재연 순서에서는 당시 작전에 참여한 최영함이 링스헬기와 고속상륙정으로 특수부대를 투입시켜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들을 사살하거나 생포하고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하는 상황을 완벽하게 재연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5면〉
연말 이웃돕기성금 〈8·9면〉
윤형빈소극장 탐방 〈6면〉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10면〉

남구 예산절감 등으로 20억원 갚아

세수확충 등 다각적 노력 기울여… 재정자립도 상승

남구가 지난 2일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빌린 20억원을 갚으면서 2012년 한해를 산뜻하게 출발했다.

남구는 2009년 재원부족으로 대출받은 20억원을 변제하기 위해 2년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업무추진비와 사무실경비, 공공요금 등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해 왔다. 이와 더불어 자체 세수확충을 위해 부서별 체납 정리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보다 1.92% 상승했으며 2009년 말 119억원이던 채무액이 69억원으로 줄어든다.

남구는 앞으로도 남은 채무액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09년 말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 등으로 인한 재산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세입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 승인 범위 내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20억원을 빌렸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예산절감과 세수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단시간 내에 20억원을 갚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구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보름달 보며 한해 소원 빌어요"

백운포 달맞이축제 2월6일 오후3시 백운포체육공원서

"정월 대보름달을 보며 한해 소원을 빌어요"

남구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2012 달맞이축제'를 내달 6일 용호동 백운포체육공원에서 연다.

부산남구문화원(원장 성재영)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오륙도여성합창단과 오륙도무용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어서 풍물놀이와 지신밟기, 연날리기 퍼포먼스 등으로 분위기를 띄운 다음 용호향우회(회장 왕종권)가 준비한 기원제를 올린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달집태우기.

달뜨는 시각에 맞춰 남구청년연합회(회장 민경국)가 만든 달집을 태우며 이때 참가 주민들은 일제히 손을 모아 한해의 건강과 행운을 빌게 된다. 달집에 불이 붙음과 동시에 참석자들은 소망풍선을 하늘에 날리고 강강수월래 노래에 맞춰 둥근 원을 그리며 퇴장한다.

달뜨는 시각은 오후 5시57분.

이에 앞서 오후 3시부터 행사장 주변에서는 소망·덕담적기 등의 부대행사와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열려 축제의 흥을 돋우게 된다.

구청관계자는 "주민의 한해 건강과 지역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기대 달맞이축제에 많은 주민들이 참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607-4061~3

새해인사

일자리 창출·물가안정 주력

이종철 구청장

구민 여러분!

임진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유럽의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경제악화, 국내경기 침체와 물가인상, 최근 학교폭력사태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남구는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11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총 31개 분야에서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상사업비를 비롯 포상금만도 10억여 원에 이르는 등 최고의 성과를 거둔 정말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012년 올해는 민선 5기 구정의 미래 비전사업들이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구정목표인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한, 구정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은 물론, 적극적인 참여야말로 미래 남구발전을 위한 힘이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남구는 전국 최고의 일류행복도시로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해도 저는 남구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한 2012년 주요사업들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시기반 구축

지역경제 성장의 큰 축이 될 문현금융단지내에 해운거래소, 해양선박, 금융기관 유치를 통한 글로벌 금융클러스터 기반 구축과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할 대연 혁신지구 공동주거지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항만물류의 중심인 남구에 걸맞는 부산항 제2화물차 휴게소건립 등 구민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구민에게 최고의 복지는 역시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체와 지역 구직자 우선 채용 MOU체결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근로 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과 청년을 위한 지역맞춤형 및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더욱 확대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조성

이를 위해, 대연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또한,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그린리더와 그린코디 양성으로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을 강화하여 우리 남구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롤 모델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가 충만한 관광도시 육성

UN평화문화특구 조성사업의 일환인 남구 대학로 걷고 싶은 테마거리 조성으로 젊음의 열정과 패기가 넘쳐나는 문화공간 창출과 함께, 지금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천혜의 해안절경인 용호만에서 백운포 일대는 용호만 관광유람선 터미널 완공과 매립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국제공모 완료에 따른 공공용지에 대한 문화시설 용도결정이 확정되면, 688km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의 시작점인 오륙도 승두말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기점으로 용호만에 이르는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열린행정 실천

구민이 주인되는 열린 행정을 위해 자기계발을 통한 창의적 마인드 제고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명예감사관 제도와 부조리 신고센터, 주민소통 현장대화의 날, 남구청에 바란다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한발 앞서 사전예고 행정안내와 주민의 사소한 불편에도 성의를 다하는 적극적인 행정실현을 통해 구민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올해 정부도 국정운영의 중심을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 할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올 한해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남구 전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도전정신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문제라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밝은 태양이 뜨기 전 새벽미명이 가장 어둡고, 추운 한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 오늘의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우리에게로 다가 올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임진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용의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